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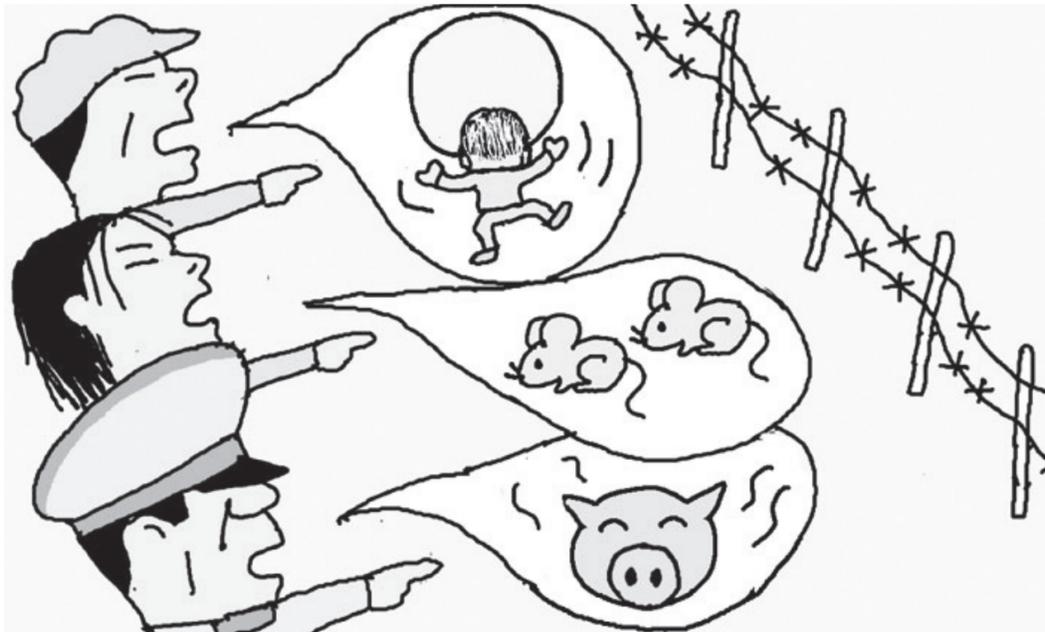
# [만물상] 북한의 욕설 연구개발

북한에도 언어 예절이 있다고 한다. 웃어른에겐 존칭어를 쓰고 직장 동료에겐 '동무', 상사에겐 '동지'라는 호칭을 붙여야 한다. 얼마 전 김여정이 관장하는 노동당 기관지가 간부 덕목으로 '언어 예절'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상생활에선 욕을 해도 속담을 비틀거나 우스개를 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갈비뼈 순서를 혁명적으로 바꿔 놓겠다" "낮가죽이 소발통(소발굽) 같은 X"이라는 식이다.

▶그런데 한·미를 향해선 말 폭탄을 퍼붓는다. 한국 전 대통령을 "쥐새끼" "박쥐"라고 부른 건 양반이다. 다른 대통령에겐 "정치 창녀" "민족 매음부" "애기도 못 낳은"이라고 했다. "미국 위안부"라고도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프리카 원숭이"였다. 인종·성(性)·신체 등 문명국에서 금기로 돼 있는 공격을 골라서 한다. 북 외교관을 지낸 태영호 의원은 한·미 비난 글을 쓸 때는 "불타는 적개심으로 원수의 심장을 찌르는 심정으로 쓰라"는 교육을 받는다고 했다.

▶이 욕설들은 김일성대역사·어문학부 등을 나온 엘리트들이 만들어 낸다. 대남 막말은 통일전선부, 대미는 외무성, 군 관련은 정찰총국이 맡는다고 한다. 부서마다 100명 이상 욕설 전문 인력들이 '신박한' 표현을 매일 궁리한다. 김씨 일가가 선전·선동을 직접 챙기는 만큼 눈에 띄면 고속 출세할 수 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북측 주역이던 송호경 통전부 부부장이 대표적이라고 한다.

▶그제 북 선전 기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미 선순환 관계 구상을 "달나라 타령"이라고 비난했다. 고위 탈북민은 "문(Moon) 대통령을 빗대려고 지어낸 표현일 것"이라고 했다. "더러운 개무리"



같은 욕도 평소엔 잘 안 쓴다고 한다. 전문 인력들이 개발한 표현일 것이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반복 사용한다. 작년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살은 소대기리가 웃을 노릇"이라고 했는데 이 명박 정부 때도 했던 말이다.

▶북한이 욕설 개발 인력까지 운영하는 것은 김씨 일가가 좋아하는 데다 말 폭탄도 중요한 무기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욕설 무기

가 안 통하는 상대에겐 조심한다. 2018년 싱가포르 미·북 회담을 앞두고 외무성 부상이 펜스 부통령을 "아둔한 열뜨기"라고 비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취소를 선언했다. 이후 북은 트럼프와 펜스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못하고 있다. 2015년 북 지리 도발 때 우리 군이 자주포 29발을 한꺼번에 북한 지역에 퍼붓자 먼저 협상을 제안해와 유감을 표시했다. 북은 그런 집단이다.

## 김여정의 '남'과 '놈'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 북한 대표단으로 서울에 왔다. 6·25 이후 김일성 일가의 첫 한국 방문이다. 외국 정상이와도 차관급이 영접하는 게 관례지만 우리 측에선 장차관급 3명이 몰려가 서른 살짜리 '백두 혈통'을 맞았다. 통일장관은 "북측 귀한 손님이 오신다니 날씨도 거기에 맞춰 따

뜻하게 변한 것 같다"고 했다. 2박 3일간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을 네 차례 만났다. 그 때마다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며 "평양에 꼭 오시라"고 했다. "통일의 새 장을 여는 주역이 되시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김여정 두 손을 꼭 잡았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여정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 청와대는 김여정이 문 대

통령에게 공손히 술을 따르는 사진, 활짝 웃으며 대통령 부인과 환담하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판문점에서 문 대통령이 "(김여정은) 남쪽에서 아주 스타가 돼 있다"고 하자 김여정의 얼굴이 빨개졌다고 청와대가 전하기도 했다. 우리 어용 매체들은 김여정이 '예의 바른 공주님' '평화 매신저'인 것처럼 보도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여정 앞에서 '평양 올림픽이 두 가지를 남겼다. 성공 개최와 김 부부장(김여정) 팬클럽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그 자리에 있던 문 정권 실세들이 서로 '김여정 팬클럽 회장'을 자처했다. 농담인 줄 알았다. 이후 평양 회담을 다녀온 친여인사도 ("평양에서) 사람들이 팬클럽 회장을 하겠다고 난리였다" "남매(김정은·여정)가 없으면 북한이 격정된다"고 했다. 농담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제 김여정이 '팬클럽 회원'들이 있는 문 정부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나는 못된 짓 하는 놈(탈북민)보다 못한 척하는 놈이 더 밉더라"고 했다. 문 대통령을 겨냥해 '놈'이라고 한 것이다. 2년 전 '남'이 '놈'이 됐다. 3월에도 "저능한 사고" "완벽한 바보"라고 막말을 했다. 서울 환송 만찬에서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한다"며 수줍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지금 북에서 김여정은 김정은 다음가는 신(神)이나 다름없다. 북 주민의 생활 여탈권을 쥐고 있다. 김씨 왕조 유지에 필요할 때만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보내는 것이다. 김정일 여동생 김경희도 그랬다. 앞으로 남북 이분트가 벌어지면 김여정은 표정을 바꾸고 또 '문 대통령님'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김여정 팬클럽 회원들이 열광할 것이다.



## ☺ 세계에서 가장 웃긴 농담 😄

세계에서 가장재미있는 농담은어떤것일까?  
영국하트퍼드셔 대학의 교수 리처드 와이즈먼박사의 연구팀인 래프랩(LaughLab)과 영국과학진흥협회는 온라인을 통해 1년여 동안 '웃음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실시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재미있는농담1~2위 및 국가별로 가장 인기있었던 농담들을 가려낼 수 있었다.

1위: 뉴저지의 사냥꾼 두명이 숲을 가다 한명이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숨을쉬지도않고 눈이 돌아가 있었다. 다른 한명이 휴대폰을 꺼내 긴급구조센터에 전화를걸어 교환에게 대답하게 외쳤다.

“친구가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교환은 침착하고 조용하게 말했다.

“진정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우선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세요.”

잠시의 침묵 후, 한 발의 총소리가 들리고 사냥꾼의 목소리가 전화를 통해 다시들렸다.

“확인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2위: 설류 홍즈와 왓슨이 캠핑을 가서 즐겁게 저녁을 먹고 와인한 병을 마신뒤 잠자리에 들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홍즈가친구를깨웠다.

“왓슨, 하늘을 보고 뭐가 보이는지 말해봐.”

“별이수백만개보이는데”

“그래서뭘추리할수있지?”

왓슨이 잠시 생각을 했다.

“글쎄, 천문학적으로 말하면 은하계가 수백만 개 있고 행성이 수십억 개 있다는 거겠지. 점성학적으로는 토성이 사자자리에 있고, 시계학상으로는 시간이 3시15분쯤된거고, 기상학적으로는 내일 아주 날씨가 좋을 것 같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우리는 커다란 우주의 아주 작고 하찮은 존재라는 거지. 자네는뭘알수 있나?”

홍즈가잠시조용히있다가말한다.

“왓슨, 자네는바보로군! 누가우리텐트를훔쳐갔잖아!”

### 어느 할머니의 개그

할머니 두분 이서 지하철에 타셨다

자연스럽게 노약자석을 점령

등산복차림에 알록달록한 의상이었던 할머니들이 눈에들어와서 할머니를 잠시보고있었다

그때 할머니이 입을 여셨다

할머니1:여자가 50대가되면 어떻게되는줄아려?

할머니2:몰러~

할머니1:이쁜년이나 못생긴년이나 마찬가지로야 이나이에 어딜가서 뭘해

(나):할머니 주책이시네;; ㅎㅎ;;

할머니1:여자가60대가되면 어떻게되는줄아려?

할머니2:몰러~

할머니1:배운년이나 안배운년이나 마찬가지로야 늙으면 다까먹지

순간 지하철은 피식 웃음이 튀어나왔다 그때 난 깨달았다.

나말고 그할머니를 주시하는분이 많다는사실을 ㅋㅋ

할머니이 또 입을 떼셨다

할머니1:여자가 70대가되면 어떻게되는줄아려?

할머니2:몰러~

할머니1:돈많은년이나 없는년이나 마찬가지로야 저승에 찌질머지고가?

지하철은 순간 대중들의 웅얼거림이 느껴지고 할머니에게로 시선이 집중됨을느꼈다

필받은 할머니 결정타를날리신다

할머니1:여자가80대가되면 어떻게되는줄아려?

할머니2:몰러~

할머니1:산년이나 죽은년이나 마찬가지로야 ㅋㅋ

